

2024년 편지

## 함께 가는 여정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떼제 공동체는 신앙의 모험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그리스도교 교회의 운동, 공동체, 조직의 파트너들과 함께 '투게더'(Together)<sup>1</sup>라고 이름한 “하느님 백성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성)에 관한 시노드 개막식에서 알로이스 수사<sup>2</sup>가 드러낸 직관인 “투게더”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교회 단체는 물론 사회 안에 선의를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들 안에 있는 은사를 찾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치의 밤기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청한 여러 교파의 지도자 20여 명과 가톨릭교회 제16차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시노드) 참석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18,000여 명의 남녀노소가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4,000명의 청년들은 주말 프로그램을 하면서 로마 본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222개 곳에서 이 밤기도와 같은 정신으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장차 함께 가는 여정을 열어줄까요? 예수께서는 “너희 스승은 한 분이시고 너희들은 모두 형제 자매다”(마태2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직 불완전하지만 실제적인 친교로 연합된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료 여행자로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가족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화해하는 대화 안에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sup>3</sup>

이렇게 커져가는 친교감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지구의 울부짖음과 인류 가족을 분열시키는 양극화와 같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남과 상호 경청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여정을 함께 갑시다.

경청을 재발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 과정에서 드러날 (표현될) 지 모르는 두려움을 무시하기보다는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서 떼제로 가는 길에 저는 떼제가 개최하는 제46차 젊은이들의 유럽 모임<sup>4</sup>이 열리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 들러 자원봉사 청년들과 떼제 수사들, 성 안드레아 수녀회와 슬로베니아 친구들로 구성된 국

---

<sup>1</sup> 이 밤기도는 2023년 9월 30일에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ogether2023.net](http://www.together2023.net)을 참조.

<sup>2</sup> 알로이스 수사는 2005년 8월 16일 로제 수사의 죽음 이후부터 2023년 12월 2일까지 떼제의 원장이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 친교의 봉사자로서 교회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연대하는 길을 모색하려 애써 온 그에게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겠습니까?

<sup>3</sup> 오늘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아이티, 니카라과, 수단 등 세계 여러 곳의 분쟁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sup>4</sup>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제 준비팀을 만났습니다.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음 목상의 대부분은 당시 우리 대화의 결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데 기여한 형제들과 이 여정을 함께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마튜 수사

류블랴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홍리스”가 되는 것은 단지 주거 문제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내면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적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여정을 시작하려면 얼마 만큼 합의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저 타인을 용인할 뿐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빈 말을 주고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때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경청

모든 대화의 핵심은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느님/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 “내 백성이 들으라”(신명기 6:4) - 이 말은 그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수 세기가 지난 후,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sup>5</sup>의 규칙은 “주의 깊게 들어라” 는 말로 시작합니다.

경청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경청은 모든 신뢰 관계의 핵심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경청 없이는 어떤 관계도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사심 없이 들을 때, 우리는 그들이 존재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듣는 것의 중심에는 침묵이 있습니다<sup>6</sup>. 성경에는 이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침묵의 숨결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열왕기상 19.11-13). 마

---

<sup>5</sup> 누르시아의 성 베네딕토(c. 480-c. 547)는 서방 수도생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쓴 규칙은 수도원이 발전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채택되었고 이후의 많은 수도원 규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sup>6</sup> 프란치스코 교황은 '투게더' 모임에서 침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다미아노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믿음, 기대, 준비된 마음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침묵이 우리를 하느님과 또 우리 자신과 대면하게 해주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말과 삶의 기초입니다. (...) 침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루카/누가 10:39)<sup>7</sup>. 오래된 성경의 기도는 “주께서 내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시편 40:7)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상을 자주 받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 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코 폭력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아니시며<sup>8</sup> 결코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듣나니, 주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평화로다.”(시편 85:8).

## 여정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순례자입니까? 우리는 그저 외부에서 관찰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면 깊은 곳의 갈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순례자는 비록 도착지점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방향을 느끼면서 여행의 각 단계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목표 없이 가는 길은 목적 없는 방랑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sup>9</sup>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겠습니까? 그와 여정을 함께한다는 말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따르는 길이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과 친교에 뿌리를 두신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온 사람 누구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와 당신의 삶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사회의 변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인들과 소외된 이들, 심지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 속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셨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들에게 자극 받았고 종종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sup>10</sup>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위해 관대한 겸손<sup>11</sup>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

<sup>7</sup> 많은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발치에 앉거나 발을 만지는 것이 그 사람을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sup>8</sup>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결코 고통을 가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친구 라자로/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죽음과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닐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up>9</sup>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목표도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sup>10</sup> 마태복음 11장 30절 참조. 우리 마음이 더 온유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까? 사랑의 반대는 분노가 아니고 미움조차 아니고 완악한 마음입니다.

<sup>11</sup> 겸손은 굴복이나 굴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큰 내면의 힘을 필요로 하며 결코 사람의 재능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여정은 교회와 사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와 인류 가족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함께 건설하기 위해 공유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기타의 줄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그것을 함께 뜯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어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sup>12</sup>. 경청은 우리와 다른 점을 가진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세계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게 할 때, 흔히 우리 공동의 인간성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크지 않습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는 실제로 가능합니다<sup>13</sup>.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일치가 이미 하느님과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요한복음 17:21-23)을 발견하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입혔는지 말할 때, 우리는 담대히 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나 우리의 관점을 보호하기 위해 듣기를 중단합니다. 연민의 마음이란 다

---

나 자질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sup>12</sup> “우리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 이야기, 특히 노래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드니아마탄하 족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남호주 아드니아마탄하 족 장로이자 연합 개신교회 목사인 드니스 채프먼(Denise Chapman) 할머니. 2014년의 책 <Yarta Wandatha> 에서 발췌.

<sup>13</sup> Anne-Laure Danet 목사의 글 참조: “분열은 다양성과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다양성은 우리 각자의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민족적, 성적 등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필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갈라디아서 3:28)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부차적이라 해도,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며 그 안에서 신자들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양한 정체성이 부차적으로 남는 순간부터 그것은 어떤 구멍 같은 것을 허용함으로써 풍요한 자산이 됩니다. (...) 다양한 정체성을 똑같이 만들어버리지 않고 (...) 반대로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활동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을 분리하지 않고 강화하고 정제해 줍니다. 따라서 공유된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획일성도 거부하는) 다양성 안의 일치에서 화해한 다양성 안의 일치로 교회일치 운동이 한 단계 진전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양성, 분열에서 서로 풍요롭게 하기로, - Revue Française de l'Orthodoxie N°282, 2023년 4월~6월호에서 번역)

른 사람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아마 때로는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이, 비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다<sup>14</sup>.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sup>15</sup>. 이는 우리 자신의 이상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만큼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6</sup>

그리고 우리는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sup>17</sup>. 사도 바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맹렬히 대적하다가 그 무한한 사랑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로마서 5,5장). 우리는 이 부드러운 존재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 거기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신뢰가 다시 피어나 하느님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비추지 않겠습니까?

## 하느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물기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여정 또한 시간이 - 때로는 평생이 걸립니다. 아마도 참을성 있는 인내와 신실하게 남는 것이 중요한 곳이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정, 하느님과 함께 하는 여정.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sup>18</sup>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듯 우리도 당신 안에 남아 있으라고 초대하십니다(요한복음 15장 참조). 남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그분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남아 있

---

<sup>14</sup> 고백자 성 막시무스 참조. “서로에게 동정심을 보여주고 겸손을 통해 서로를 치유합니다.” (수덕생활 41)

<sup>15</sup> 여러 교파가 함께 한 “투게더” 밤기도 동안 우리는 초세기 때부터 세계공의회 때 바쳐졌던 고대의 기도 “Adsumus Sancte Spiritus”(“성령님, 우리는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를 사용하여 성령께 간구했습니다.

<sup>16</sup> “‘하느님 나라’는 이상적인 비전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 이 세상의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비전은 환상이다. 환상은 삶의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거부할 때 만들어진다. 그것은 현실의 세계에서 벗어나 비현실의 영역으로 도피하는 것이다.” 대만 신학자 송천성, 예수와 하나님의 통치, Fortress Press, 1993, p. 77

<sup>17</sup> 14세기 영국 노리치 출신 여성 은수자 줄리안은 자신의 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느님은 고귀하고 가장 큰 일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작고 보잘 것 없는 일, 낮고 단순한 일에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가장 작은 것도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분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다.

<sup>18</sup> “우리가 이웃의 현실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실재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임재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왜곡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의 실재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훼손될 것이다.” 일본 신학자 교야마 고스케(Kosuke Koyama), 물소 신학(Water Buffalo Theology), Orbis Books, 1974, p. 91

을 때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과실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한 자유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바치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옮겨가는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열매는 삶을 온전히 살 때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복음의 도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현대사회에서 함께 걷는 여정

오늘날의 도전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집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처입은 창조세계를 바라봅니다. 상처입은 우리 인류 가족도 그 일부입니다. 고통은 착취당하고 수모를 당했던 민족들의 경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전쟁으로 찢어진 가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와 떼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삶이 손상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sup>19</sup>.

그럼에도 이 도전에 함께 직면하라는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여행도 함께 걸을 때 짧게 느껴진다.” 세렝게티와 마사이마라 사이 야생동물의 '대이동' 동안 강을 건너고 독을 오르기 위해 어린 송아지는 어른의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도 업혀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이 나를 업고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처할 때 아름다움과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sup>20</sup>.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활력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불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분의 친구 두 명이 그분이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루카/누가 24:13-35).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는데 낯선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이윽고 그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보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sup>19</sup> 떼제 홈페이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계속되는 학습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sup>20</sup>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새로운 아름다움이며!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바깥 세상에 있었고 그곳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당신이 만든 저 창조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 당신이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당신의 평화를 얻으려 불탔습니다”(고백록 10.27.38)

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마태복음 28,20). 우리는 이 약속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스스로 작다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반죽에 넣은 누룩처럼(마태 13:33) 서로를 풍요롭게 하면서 담대히 다시 출발하겠습니까?

### 떼제에서 하는 자원봉사

떼제의 모임은 18세에서 29세 사이 남녀 청년 자원봉사자 덕분에 가능합니다. 몇 주에서 1년까지 장기간 떼제에 머물 수 있는 젊은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 함께 기도

떼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루 세 차례의 공동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기도를 통해 떼제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함께 ... 공동체로 살기

우리는 다양성의 풍성함을 공유하면서 모든 대륙, 다양한 교파의 젊은이들과 함께 작은 임시 공동체를 이룹니다.

###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

떼제에서 젊은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지원해 주세요.

더 알고 싶다면 [www.taize.fr/volunteering](http://www.taize.fr/volunteering)을 참조하세요.

### 2024년에 계속되는 공동의 여정

**2024년에는 다음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 18세부터 35세의 청년들을 위한 국제 모임이 떼제에서 연중 계속됩니다. 참가할 수 있는 분들은 떼제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 \*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떼제에서 보내는 성주간과 부활절
- \* 7월 7일부터 12일 : 청년 무슬림과 그리스도인 청년 우정의 모임
- \* 8월 4일부터 11일 : 정교회 신앙 나눔과 증거/간증
- \* 8월 25일부터 9월 1일 : 18-35세를 위한 특별 주간